



욕적이고 더 평온하며, 덜 걱정하고 더 존중하며, 더 형제적인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론은 있을 수 없다”라며 생태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습관을 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산업화 이후 지구 연평균 기온을 1℃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2006~2015년의 10년간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평균보다 0.8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극에서는 2~3배 더 크게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지금보다 0.5℃ 높아지면,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입, 홍수, 이상 기온, 생태계 파괴, 기반 시설 피해, 동식물 멸종, 열에 의한 질병 창궐 및 사망, 식량 감소 등 지구촌 피해는 이루 나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30~2052년 사이 1.5℃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명확한 대응 방법이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류가 생활방식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상

처받은 피조물 세계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의 무질서한 개발과 발전의 집착으로 인한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도 우리 생활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부터 솔선수범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음식물 포장, 배달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은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 가족의 부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와 물 등 환경 자원은 결코 무한대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부터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잘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겠지요?